
	<b>보 도 자 료</b>		
	배포일자	2026년 4월 10일(금)	
담당 부서	문화예술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문화시설팀장 김지숙 ☎880-7961</li> <li>•담당 주무관 이경진 ☎880-7962</li> </ul>
사진	있음		보도시점 배포 즉시

**미추홀구, 5천 원으로 즐기는 고품격 공연.. ‘학산 가족 음악회’ 개막**

인천 미추홀구(구청장 이영훈) 학산 생활 문화센터 학산소극장에서 오는 4월 29일 저녁 7시 ‘2026년 학산 가족 음악회’의 첫 번째 공연을 개최한다.

‘학산 가족 음악회’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며, 시민들이 일상에서 부담 없이 공연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. 특히 가까운 공간에서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어 가족 단위 관객을 비롯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.

올해 첫 무대는 어쿠스틱 밴드 ‘신나는 섬’의 공연 ‘어쩌다 마주친 작은 음악 축제 <어쩌다 카니발>’로 꾸며진다. ‘신나는 섬’은 바이올린, 아코디언, 집시 기타, 우쿨렐레, 하모니카, 더블베이스, 퍼커션 등 다양한 어쿠스틱 악기를 기반으로 활동하며, 경쾌하면서도 따뜻한 사운드로 관객과 호흡해 온 팀이다.

특히 ‘망원동 로마니’, ‘아침부터 카니발이야’ 등 밴드 고유의 색깔이 담긴 곡들과 함께 ‘리멤버 미’, ‘에델바이스’ 등 대중에게 친숙한 곡들을 연주해, 마치 유럽의 어느 골목에서 우연히 마주친 거리 축제와 같은 이국적이고 동화적인 감동을 선사할 계획이다.

미추홀 학산문화원 관계자는 “올해부터 유료 공연으로 전환해 ‘문화가 있는 날’을 기반으로 한 공연 문화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고자 한다”라며 “앞으로도 일상에서 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무대를 꾸준히 선보일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
이번 공연은 7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전 좌석 5천 원으로 운영된다. 예매는 엔티켓(www.enticket.com)을 통해 진행되며, 공연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 학산문화원(☎032-866-3970) 또는 누리집(www.haksanculture.or.kr)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